

#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

## The Relation between Paternal Self-esteem,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s Self-esteem.

이 미 정  
Lee, Mi Jeong

###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paternal self-esteem,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s self-esteem. The secondary purpose was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al differences according to child's sex. 272 dyads consisting of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nd their measured by the Self-Esteem Inventory (for children), the Self-Esteem Scale (for fathers), and the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Pearson's r., F-test, and Dug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Paternal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ental involvement', 'reasoning guidance', and 'intimacy'. Paternal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irl's self-esteem. Child's self-esteem was positively related to 'parental involvement', 'limit setting', 'responsiveness', 'reasoning guidance' and 'intimacy'. In sex differences, only boy's self-esteem wasn't related to paternal 'limit setting'. Boys' self-esteem was strongly related to 'parental involvement', and girls' self-esteem was strongly related to 'reasoning guidance'.

---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I. 문제의 제기

아동이 성장하는 데 부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 제공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아버지는 2차적 인 양육자로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분화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것이고 불가피하다는 문화인류학적·생물학적 주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Lamb, 1981; Maccoby & Martin, 1983; 파크, 황응연·장휘숙(공역), 1986).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이론적 주장들처럼 아동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과연 무시될 만큼 미약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Lamb, 1981). 그런데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친부재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상의 불이익을 연구함으로써 아버지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방법론상으로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지양하는 경향이다. 즉, 부친부재 자체의 영향과 그로 인한 심리적·사회경제적 영향을 구분하지 못했고 부친부재의 범주를 규정하는 문제(친부·계부의 문제)와 부친부재의 기간 및 원인 등이 각각 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제한점을 지닌다(Pederson, 1976).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직접 연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자녀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질적·양적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연구, 가족체계 속에서 부·모·자녀관계를 고찰한 연구,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세 범주로 집약될 수 있다(Maccoby & Martin, 1983).

그 결과 아버지의 역할은 결코 미약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자체에도 영향을 주어 건전한 아동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Clark-Stewart, 1978; Lamb, 1975, 1978; Power, 1985).

이에 대하여 Weinraub(1978)은 아동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2급부모(Second-Class Parents)의 역할이 아니라 2차적인 부모(Second Parents)의 역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동등한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한편, 자기존중감(self-esteem) 이런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Medinnus, 1970), Coopersmith(1967)는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라고 정의했다.

자기존중감의 발달은 반영이론(reflection theory)과 모델이론(model theory)으로 설명되는데 전자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며, 후자는 모델을 관찰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존중감이 발달한다고 설명하여(Mead, 1934 ; Bandura, 1977) 두 이론 모두 부모를 가장 중요한 타자 및 모델로서 제시했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부모의 자기존중감 자체와 그들의 양육행동에 의하여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처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금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며(크레인, 서봉연(역), 1983), 칭찬과 훈육의 빈도는 적으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박성연, 1985) 어머니와는 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Mediannus(197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따뜻한 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높아지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존중감 발달에 저해가 된다고 했으며, Sears(1970)도 7세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면접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학교 4,5,6학년 남아를 대상으로 한 Siegelman(1966)의 연구에서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자기비판적이고 의기소침한 남아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과도하게 처벌적이고 요구적이고 애정이 없는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이덕순(1980)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면서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전반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애정적 보상과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계층, 부모의 관심, 종교, 출생순위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Rosenberg(1965)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기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결론짓고, 어린 시절의 부-자녀관계는 자녀의 자기존중감 발달에 특히 중요하므로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없었을 때는 낮은 자기 존중감을 지니게 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게 된다고 했다. Slater(1962)와 Mote(1967)도 부모의 지지적인 관심이 자녀의 자기존중감 발달에 중요하다는 결론에 동의하였다.

Halpin, Halpin & Whiddon(1980)은 통제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높은 자기존중감은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도, 원칙을 규정해놓은 훈육태도, 성취에 대한 보상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보호, 외적(external)처벌, 성취에 대한 압력, 특권의 박탈, 감정적인 처벌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고 했다.

Coopersmith(1967)도 아동의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키는 필수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자녀에게 명확한 제한을 제시한 후, 그 한계 내에서 아동의 행동에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제한설정이 명확할 때 아동이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용이하고 사회적 행동 범주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비교해 보는 데 도움을 받으며 나아가 아동 스스로 일관성 있는 '자기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제한설정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그 결과

가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연구도 많지 않다. 아동의 성별을 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Elrod 와 Crase(1980)는 아버지의 동일한 양육행동 일자라도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키는 데 아들과 딸은 상이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Baruch & Barnett(1975) 과 Henning & Jardim(1976)은 자기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영향이 커었으며 아버지와 매우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고함으로써(Bee, 1981에서 재인용), 자기존중감 발달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별이 하나의 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Coopersmith(1967) 와 Mussen, Conger & Kagan(1969, Mussen et al(1974)에서 재인용)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 그들의 부모도 자기 존중감이 높고 자립심이 강했다고 했고, 김경연(1985)도 아동 및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연령,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했을 때도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Gecas, Calonico & Thomas(1974)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자기존중감 수준과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동일시에 의해서 발달한다고 기대되나 아동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영이론과 모델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하며, 나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아동의 자기존중감 발달을 격려함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양육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를 변인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3.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를 변인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3개구에서 국민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5, 6학년 남녀 아동 272명(남아 145명, 여아 127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아버지의 자기존

중감은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SES)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Rosenberg의 SES는 개개의 기능, 행동 또는 구체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피험자가 포괄적으로 자기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성인용 측정도구이다. 원래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척도인데,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양극단을 피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꽤 그런 편이다'로 부터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까지의 6점척도로 수정하여 응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각 문항마다 1점에서 6점까지의 점수를 주었으며(전체득점범위 : 10~60점)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 본 도구의 Cronbach의  $\alpha$ 값은 .71이었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아버지의 양육행동은 Crase et al(1978)의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IPBI: Father form)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IPBI: Father form은 전체 36문항으로서 '양육에의 참여' '제한설정' '반응' '합리적인 지도' '친밀감'의 5개 영역에 대해 아버지가 직접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2개 문항을 제외시키고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1문항을 선정·첨가하여 총 35개의 문항을 사용했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Martin, 1975) 아동이 응답할 수 있

는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했다. 각 문항마다 '그런 편이다' '그럴 때와 아닐 때가 반반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 어느 한곳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 3점, 2점, 1점씩 주어 각 영역별로 점수를 환산했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일수록 점수가 높다. 본 도구의 영역별 Cronbach의  $\alpha$ 값의 범위는 .64 ~ .84였다.

3) 아동의 자기존중감—아동의 자기존중감은 Coopersmith(1967)의 Self-Esteem Inventory : 아동용(SEI)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Coopersmith의 SEI는 8개의 거짓문항을 포함하여 총 5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자아상을 나타내는 일반적 자아영역(general self), 가정생활에 관한 자아영역(home and parent), 학교생활에 관한 자아영역(school), 동료관계에 관한 자아영역(peers)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가 직접 문항을 읽고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상태나 느낌과 비슷하면 '나와 비슷하다'의 간에 그렇지 않으면 '나와 비슷하지 않다'의 간에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한 문항에 2점씩 주어 거짓문항을 제외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했고,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 자기존중감보다는 전체적인 자기존중감을 알아 보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4개 하위영역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점수를 아동의 자기존중감 점수로 사용했다. 본 도구의 Cronbach의  $\alpha$ 값은 .79였다.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1986년 9월 5일~6일에 서울시 은평구의 Y국민학교 5학년 아동 40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9월 15일~27일에 본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약 50분 동안(중간에 10분 휴식) 아동이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했고,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측정은 아동을 통해 아버지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후 봉투에 넣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자료의 분석은, 아버지 및 아동의 자기 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했고 추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부분 상관계수를 산출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을 사용했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연구변인의 점수분포 경향

아버지의 양육행동 영역중 응답자들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은 '친밀감' 영역이었고(Mean = 6.60, S.D = 1.75) 가장 큰 영역은 '합리적인 지도' 영역이었다(Mean

= 23.24, S.D = 4.76)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의 평균점수는 49.29, 표준편차는 6.76 이었다.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평균점수는 52.51, 표준편차는 14.82였고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lrod et al(1980), 박춘심(1976)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 2.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추후 검증을 실시했다. 이때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은 빈도분포를 기초로 상·중·하로 분류했다. Rosenberg의 SES로 측정된 자기존중감을 점수별로 분류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영역중 '양육에의 참여' 영역( $F = 3.10, P < .05$ ) '합리적인 지도' 영역( $F = 3.19, P < .05$ ) '친밀감' 영역( $F = 4.30,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이 높을 수록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형벌이나 복종과 같은 권위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한 Gilmore(1974, Bee, 1975에서 재인용)의 결과 및 Behrens(1954), 윤현선(198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제한설정' 영역, '반응' 영

<표 1>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 : 일원변량분석

중속변인		양육에의 참여			제한설정			반응			협력적인 지도			친밀감			
독립변인	N <sup>a</sup>	N <sup>a</sup>	F	grouping <sup>b</sup>	N <sup>a</sup>	F	grouping <sup>b</sup>	N <sup>a</sup>	F	grouping <sup>b</sup>							
아버지의 상(46-60)	93	14.0	A		94	20.0	93	16.3	93	24.2	A	94	6.9			A	
중(39-45)	79	13.5	3.10*	AB	77	19.7	0.72	78	15.8	1.80	79	23.4	3.19*	AB	79	6.6	4.30** AB
하(10-38)	86	12.9		B	86	19.5		86	15.3		85	22.6		B	84	6.2	B

\* P < .05

\*\* P < .01

- a. missing data로 처리된 문항이 있으므로 각각의 빈도가 동일하지 않다.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화로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역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3.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및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존중감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 $r = .243$ ,  $P < .001$ ),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인을 통제해 본 결과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약해졌으나 여전히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r = .121$ ,  $P < .05$ ).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약하나마 서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oopersmith(1967), Mu-ssen et al(1974), 김경연(198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관 정도가 약하고, 양육 행동변인을 통제했을 때는 더욱 약해졌으므로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은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관계가 있는지 하나 그 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아동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남아·여아가 모두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 $r = .244$ ,  $r = .246$ ,  $P < .01$ ).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인을 통제했을 때 남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아의 경우는 다소 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r = .176$ ,  $P < .05$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녀아동이 모두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들의 자기

존중감도 높았으나, 남아는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아는 아버지의 자기존중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존중감이 발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아에게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아버지의 평가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아에게는 아버지의 평가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관찰하여 그 특성을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동일시 과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확실한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다.

### 4.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및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아동집단, 남아집단, 여아집단 각각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변량분석 및 추후검증으로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양육에의 참여' 영역 ( $F = 19.58$ ,  $P < .001$ ), '제한설정' 영역 ( $F = 4.66$ ,  $P < .01$ ), '반응' 영역 ( $F = 13.66$ ,  $P < .001$ ), '합리적인 지도' 영역 ( $F = 14.86$ ,  $P < .001$ ), '친밀감' 영역 ( $F = 9.45$ ,  $P < .001$ )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추후검증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 수

&lt;표 2&gt;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차이 :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아동의 자기존중감			
독립변인		N	평균	F	grouping <sup>a</sup>
양육에의 참여	상	69	59.9		A
	중	108	52.6	19.58***	B
	하	66	44.9		C
제한설정	상	80	56.6		A
	중	86	51.9	4.66**	B
	하	76	49.6		B
반응	상	83	58.5		A
	중	74	52.3	13.66***	B
	하	85	47.1		C
합리적인 지도	상	69	59.1		A
	중	97	52.9	14.86***	B
	하	76	46.3		C
친밀감	상	81	57.1		A
	중	87	53.4	9.45***	A
	하	74	47.1		B

\*\*  $P < .01$ \*\*\*  $P < .001$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화로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이하 생략)

록, 명확한 제한영역을 설정해줄수록, 보다 많은 반응을 해 줄수록, 합리적으로 지도 할수록, 친밀감 있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lpin, Halpin & Whiddon (1980), Coopersmith(196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장도현(1984)은 부모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때 아동의 자기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명확한 제한설정을 전제로 한 자율적인 양육태도일 것으로 추측되어 같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친밀감’ 및 ‘반응’ 영역에 대한 결과도 친밀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Slater(1962), Sears(1970), Medin-nus et al(1963), 이덕순(1980)의 결과와 일치되었다.

또한,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영역은 ‘양육에의 참여’ 영역( $R^2 = 0.1700$ )이었고, 그 다음은 ‘합리적인 지도’ 영역( $R^2 = 0.0171$ ), ‘친밀감’ 영역( $R^2 = 0.0057$ ), ‘반응’ 영역( $R^2 = 0.0036$ )이었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격려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아를 대상으로 한 김광웅(1978)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시간보다는 자녀와의 심리적인 관계가 아동의 인성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양육에의 참여’가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질적 인 측면을 의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표 3>, <표 4>) 남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각 영역중 ‘양육에의 참여’ 영역 ( $F = 8.74$ ,  $P < .001$ ), ‘반응’ 영역 ( $F = 4.12$ ,  $P < .01$ ) ‘친밀감’ 영역 ( $F = 4.62$ ,  $P < .01$ )에서의 양육행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제한설정’ 영역에서의 양육행동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관계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수록, 반응적일수록, 합리적인 지도를 할수록, 친밀감 있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남아의 자기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남아의 자기존중감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영역은 ‘양육에의 참여’ 영역( $R^2 = 0.1195$ )과 ‘친밀감’ 영역( $R^2 = 0.0173$ )이었다. 따라서 남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격려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여아의 자기존중감은 ‘양육에의 참여’ 영역( $F = 11.36$ ,  $P < .001$ ), ‘제한설정’ 영역 ( $F = 3.35$ ,  $P < .05$ ), ‘반응’ 영역 ( $F = 12.77$ ,  $P < .001$ ), ‘합리적인 지도’ 영역 ( $F = 12.47$ ,  $P < .001$ ), ‘친밀감’ 영역( $F = 6.28$ ,  $P < .01$ )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추후검증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보다 명확한 제한을 설정해 줄수록, 보다 반응적일수록, 합리적인 지도를 할수록, 친밀감 있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여아의 자기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여아의 자기존중감에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영역은 ‘합리적인 지

&lt;표 3&gt;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남아의 자기존중감의 차이 : 일원변량분석

		남 아 의 자 기 존 중 감			
종속변인		N	평 균	F	grouping
독립변인					
양육에의 참여	상	31	59.8	8.74***	A
	중	63	54.3		A
	하	35	46.3		B
제한설정	상	43	57.0	1.77	
	중	41	52.3		
	하	43	51.9		
반응	상	37	57.4	3.15*	A
	중	45	54.3		A B
	하	46	49.8		B
합리적인 지도	상	33	58.1	4.12**	A
	중	51	54.2		A B
	하	43	49.1		B
친밀감	상	39	58.1	4.62**	A
	중	40	54.4		A B
	하	49	49.3		B

\* P &lt; .05

\*\* P &lt; .01

\*\*\* P &lt; .001

&lt;표 4&gt;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여아의 자기존중감의 차이 :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여 아 의 자 기 존 중 감		
독립변인		N	평 균	F	grouping
양육에의 참여	상	38	59.9		A
	중	45	50.4	11.36***	B
	하	31	43.2		C
제한설정	상	37	56.1		A
	중	45	51.6	3.35*	A B
	하	33	46.5		B
반응	상	46	59.5		A
	중	29	49.3	12.77***	B
	하	39	43.8		B
합리적인 지도	상	36	59.9		A
	중	46	51.5	12.47***	B
	하	33	42.5		C
친밀감	상	42	56.1		A
	중	47	52.5	6.28**	A
	하	25	42.6		B

\* P &lt; .05

\*\* P &lt; .01

\*\*\* P &lt; .001

도 '영역이었고( $R^2 = 0.2459$ ), 그 다음은 '양육에의 참여' 영역( $R^2 = 0.0449$ ), '반응' 영역( $R^2 = 0.0070$ ), '친밀감' 영역( $R^2 = 0.0033$ ) 이었다. 따라서 여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양육행동을 보일 때 가장 격려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상이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자기존중감 수준은 남아가 높았는데(남아 Mean = 53.44, 여아 Mean = 51.57)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남아  $R^2 = 0.1368$ , 여아  $R^2 = 0.3011$ ).

이러한 결과는 Gecas et al(1974), 박춘심(197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여아는 남아보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나 태도에 민감하다고 한 Gecas et al (1974)의 해석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Sears(1970)는 아버지가 덜 지배적일수록 아들의 자기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욱 애정적이고 친밀한데 비해 아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지배적이라고 보고한 점을 고려 할 때, 남아보다 여아가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같은 맥락에서 지지된다고 하겠다.

또한 남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격려되었고 여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합리적인 지도를 할 때 가장 격려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양육행동의 각 영역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타 영역들의 영향력을 경시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확실한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이 높을 때 보다 긍정적이 되며, 아동의 자기존중감은 첫째, 아버지의 자기존중감이 높을 때, 둘째,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명확한 제한을 설정해 주며, 반응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보다 친밀한 양육행동을 할 때 격려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양육행동 영역 중 남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여아의 자기존중감은 아버지가 합리적인 지도를 하는 정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5,6학년 아동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아동의 형제자매관계, 부부관계 및 제반 가족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체계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연. (1985). “아버지의 자경심수준, 아동 개인적 변인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자경심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3(2) 50-56
- 김광웅. (1978). “부자관계에 따른 남아의 인 성특징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3 7-18.
- 박성연. (1985).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재고,” 생활과학과 가정 : 가정대학 55주년 기념 교수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41-60
- 박춘심. (1976).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자아 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1) 587-601
- 윤현선. (1983). “母의 자아개념및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덕순. (1980). “아동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도현. (1984).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크레인,W.C.(1983), 발달의 이론, 서봉연(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 파크, R.D.(1986), 아버지의 역할, 황웅연, 장휘숙(역), 서울 : 창지사
- Siegelman (1966). Loving and punishing parental behavior and introversion tendencies in sons. Child Development, 37, 985-92.

- Slater, P.E. (1962). Parental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1, 53-68.
- Weinraub, M. (1978). Fatherhood: The myth of the second class parent. In, J.H. Stevens, Jr., and M. Mathews.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 New York: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Elrod, M.M. and Crase, S.J. (1980), Sex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parent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46, 719-27.
- Gecas, V., Calonico, J.M., and Thomas, D.L. (1974).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the child,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67-76.
- Hales, S. (!979). Developmental processes of self-esteem,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California, March 15-18.
- Halpin, G., Halpin, G. and Whiddon, T.(198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mong American Indian and whit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1, 189-95.
- Lamb, M.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66.  
, The father's role in the infant's social world, In J.H. Stevens, Jr. and M. Mathews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 New York: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78.
- Maccoby, E.E. Martin, J.A. (1983). Sociali-

- 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H. Mussen (series Ed.) and E.M. Hetherington (Vol.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V.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artin, B. (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Horowitz,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dinnus G.R. (1970).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disturbed adolescent chil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5, 98-105.
- Medinnus, G.R. and Curtis, F.L. (!963).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self-acceptance and child acceptanc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7, 542-44.
- Mote, F.B. (1967).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acceptance and child acceptanc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7, 542-44.
- Mote, F.B. (196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self-concept in school and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 in child rearing, Dissertation Abstracts, 27(10), 3319.
- Mussen, P.H., and Conger, J.J. & Kagan,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ew York: Haper & Row.
- Pederson, F.A. (1976). Does research on children reared in father-absent families yield information on father influences? Family Coordinator, October, 459-464.
- Power, T.G. (1985). Mother- and father-infant play: A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1514-2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2.
- Sears, R.R. (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 267-8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e, H. (1975). The developing child, New York: Harper & Row.
- . (1981). The developing child (3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 Behrens, M.L. (1954). Child rearing and the haracter structure of the mother, Child Development, 25, 225-238.
- Clark-Stewart, K.A. (1978). And Daddy Makes Three : The Father's Impaction Mother and Young Child. Child Development, 49, 466-7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ase, S.J., Clark, S.G. and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